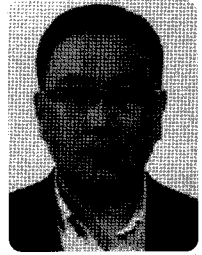


【특집: 2011년 주종별 비업시료산업 전망】

# 낙농 사료산업 전망



남기돈  
CJ제일제당(주) 축우PM  
부장

## ▣ 2010년 낙농산업 결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도 어느덧 10년이 다해가는 이 시점은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FTA협정에 의한 축산물시장 개방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축산산업도 국내 경제 전망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 전망에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은 그 어느해보다 축산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가 많았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 곡물가의 인상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 그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또 이상기후로 인한 찜통 더위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와 생산성저하,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피해 등...

수많은 이슈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한 해였다고 회자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은 그 어느해보다 낙농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총사육두수는 429천두 수준이며, 낙농 농가수는 6,417호로 전년동기 6,763호 대비 5.1% 감소하였다. 이는 하루에 한농가씩 폐업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0년 3/4분기 낙농 사육 현황〉

(단위: 두, 호)

구분	2009 3/4	2010 3/4	전년동기 대비	비율	
낙농	두수	437,858	429,368	-8,490	98.1%
	호수	6,763	6,417	-346	94.9%

그리고 국내 원유생산량을 보면 '10년 상반기 원유생산량 누계치는 전년보다 6.0% 감소한 1,413천톤을 기록하여 아직까지 전반적인 생산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난 여름 찜통더위와 함께 높은 습도, 그리고 태풍에 의해 젖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큰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여름 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더위에 특히 약한 고능

력우들이 극심한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폐사도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는 모기매개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도 속출하고 있어 원유생산량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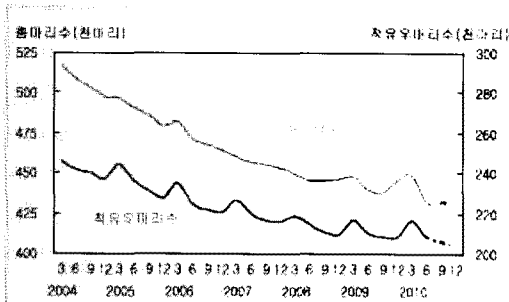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인한 유질저하가 수취 유대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실제 유대수취가격을 보면 여름철부터 감소가 확연히 보이고 있으며, 우유소비량증가에 따른 생산부족현상으로 인한 저능력우 도태 지연도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3/4분기 우유 수급현황〉

(단위: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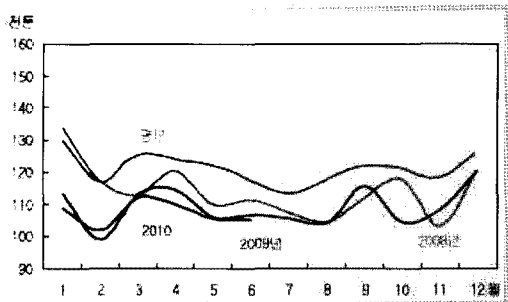
구분	10년 상반기누계	전년동기 누계	전년비	비율	
생산	국내생산	1,413.3	1,419.3	(6.0)	99.6%
	수입	722.6	603.1	119.5	119.8%
	생산계	2,135.9	2,022.4	113.5	105.6%
소비	국내소비	2,102.5	2,000.6	101.9	105.1%
	수출	46.1	42.1	4.0	109.6%
	소비계	2,148.6	2,042.7	105.9	105.2%
재고	509.2	841.7	(332.6)	60.5%	

■ 젖소 사육마리수와 착유우 마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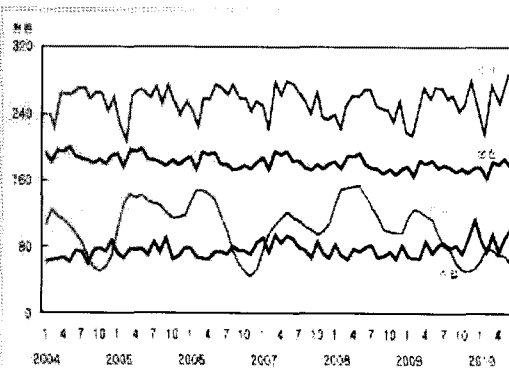
주: 2010년 9월, 12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젖소 배합사료 생산량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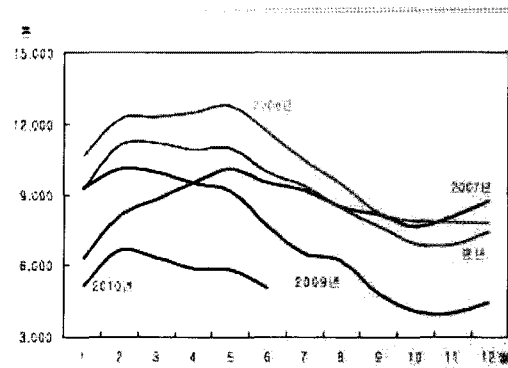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5-09년 중 최저, 최고치를 제외한 평균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유제품 수급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 분유 재고 동향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2010년 수취 유대 단가 변화〉

(단위: 원/kg)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평균
2010년	846.0	837.0	828.0	822.3	817.1	822.4	836.4
2009년	852.0	843.0	837.0	831.3	830.7	838.4	844.2
차이	-6.0	-6.0	-9.0	-9.0	-13.6	-16.0	-7.7

또한 9월까지 낙농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955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원유 생산량 감소폭 1.9% 보다 훨씬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급여량 조절 및 조사료 급여 증가, 사육두수 감소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우리 농업, 특히 축산업에 큰 시련이 하나 더 더해졌다. 한·EUFTA가 양측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발효 후 15년 차에 3,0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돼지고기가 1,214억원으로 가장 크고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잇는다. 낙농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액은 훨씬 더 크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낙농분야 피해를 1,028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분유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EU로부터 수입된 양은 적게는 62.4%에서 많게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EUFTA가 타결로 인해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EU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허용 될 경우 EU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절대수입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2010년도 우리 낙농 산업은 많은 해결과제를 남긴채 2011년을 맞이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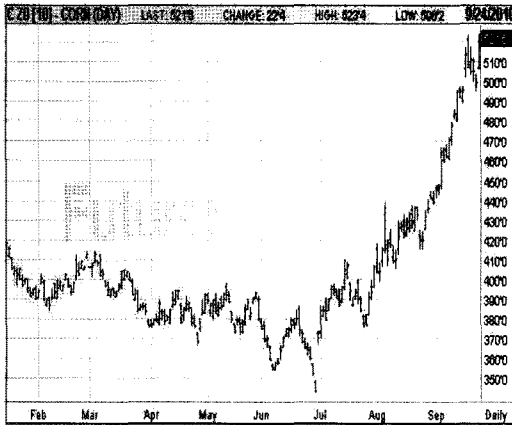
▣ 2010년 낙농산업 전망과 우리가 해야 할 일

2011년 낙농산업을 전망할 때 그 어느해보다 출발은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세계 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이 우선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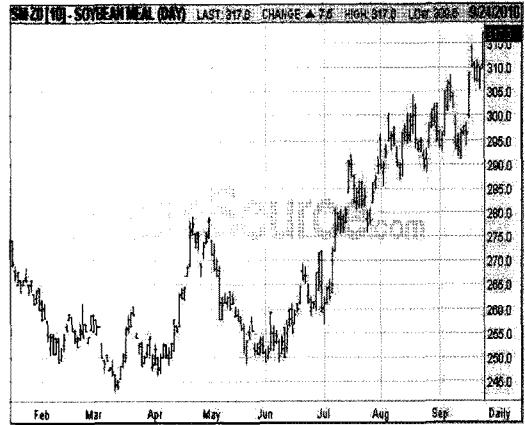
지난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밀 국제가격에 이어 최근에는 옥수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곡물시장으로 투기세력 진입이 확대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수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두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미국농무부(USDA)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0/11년도 밀, 옥수수, 대두의 기말재고율은 각각 26.3%, 15.8%, 24.3%로 전년대비 3.9%p, 2.4%p, 1.0%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국제가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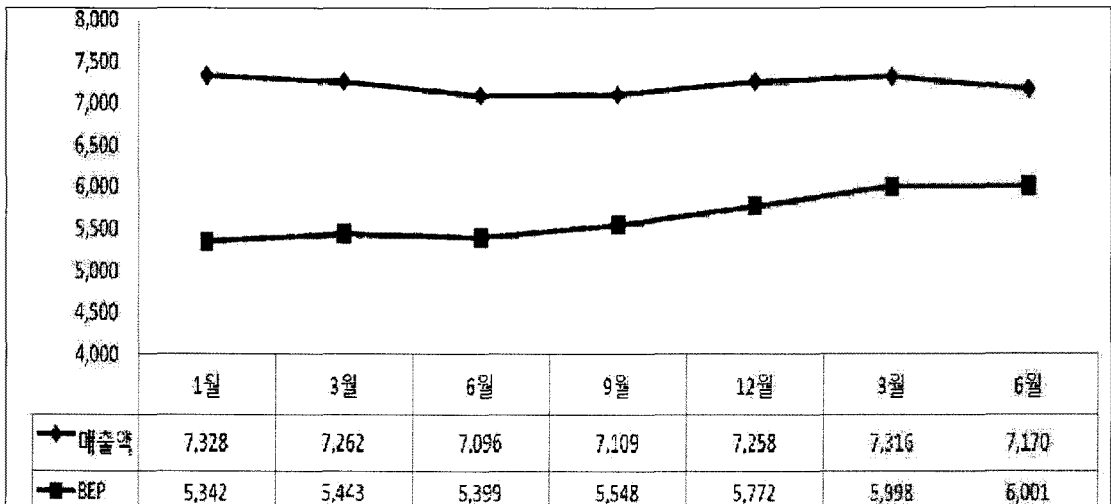


〈대두박 국제가격변화〉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은 국내 사료가격에 영향을 주어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 곡물가격이 국내 물가에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2011년의 사료비에 의한 생산비 상승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내 사육두수의 경우

소폭 감소 내지는 유지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육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2010년 우유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육두수감소 및 기타 영향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원유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 유업체의 원유 부족현상으로 연결되고 목장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저능력을 유지하는



〈2010-2011년 낙농목장 착유두당 수익분석〉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2011년 앞에서 말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와 저능력우 사육에 의한 생산비 상승과의 관계에서 낙농산업의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010년 우리 낙농업계는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고, 그 과제들은 201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집유의 효율화' 및 유대정산 체계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정립이 되어야 하고, 현재 업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유대정산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어 유업체 및 농가 그리고 웰빙과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성향과 기호의 변화에 잘 맞을 수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만족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낙농선진국의 경우 물론 치즈를 선호하는 식문화로 인한 이유에서지만 이미 유단백이나 무지고형물을 기준으로 유대가 정해진 현재는 향후 수입관문이 열렸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우유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혼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유대산정체계는 그동안 국내 모든 목장의 사양관리와 젖소의 개량을 한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유단백 위주의 유대산정을 할 경우 젖소의 개량부터 사료, 사양관리까지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심지어는 금전적인 이해까지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낙농산업의 직간접적인 업계들간에 어떻게든 슬기롭게 풀어야할 숙제임은 틀림 없다.

둘째는 사양관리 부분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증가에 의한 원유부족현상으로 목장은 생산성이 좋지 않은 저능력우도 자연스레 보유하게 되고, 해마다 찾아오는 이상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그로인한 생산성 저하, 또 다시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피해등,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준비하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2009년 고곡가 시대에 국내 목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났던 배합사료 줄여먹이기와 저급조사료 급여가 2011년도에도 일어날지 모른다.

국내 원유생산량의 감소가 단순히 사육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 해봐야만 한다.

사료업체도 2011년 산업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특히 우리 낙농목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변화를 대응하기위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은 유업체, 그리고 목장 뿐만 아니라 목장에 있는 젖소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료업체 등 낙농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혼연일체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목장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만 국내 낙농이 살고, 그와 연계된 산업전반적인 부분이 살기 때문이다.

2011년도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우리 목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젖소 개체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한다.

